

보도시점
2026. 4. 19.(일) 11:00
배포
2026. 4. 17.(금) 16:00
4. 20.(월) 조간

농촌창업 경진대회(농촌 어메니티 창업 분야) 경쟁률 15:1, 다양한 창업 사례 확인

- 제품 개발, 농촌관광, 체험·교육 등 152건 사례 접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12일까지 농촌창업 경진대회(농촌 어메니티 창업 분야) 공모·접수를 한 결과 152개 기업이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농식품, 뷰티 등 제품 개발이 64건으로 가장 많았다. 농촌관광 35건, 체험·교육이 22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유희시설과 농촌 공간을 활용한 사례가 많았다. 또한, 스마트팜, 데이터 기반 스마트 솔루션 등 스마트 기술 분야와 농촌관광 등과 연계한 플랫폼, 농업 관련 서비스, 식문화 콘텐츠 등의 사례도 접수되었다.

연령대는 30대가 48.0%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이하 비중이 82.9%를 차지하였다. 지역별로는 농촌 소재 기업이 75.7%로 다수를 차지했고 농촌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도 24.3%에 달했다. 농촌의 다양한 유·무형 자원이 새로운 창업 기회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접수된 사례에 대한 심사·평가와 후속 지원에 착수한다. 농촌 어메니티 분야는 4월 23일부터 서면·현장·발표 심사를 거쳐 5월 내 최종 선정(10팀 이내)할 계획이며, 이어서 로컬푸드 창업 분야도 4월 말에 공모를 시작하여 7월까지 별도로 선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선정된 우수 농촌창업 기업에는 장관상 등을 수여하고 민간기업 등과 연계하여 신제품 개발, 콘텐츠 기획, 브랜딩, 판로개척 등 맞춤형 보육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며, 2027년부터 지방정부와 연계해 최대 1억 원 규모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2025년 7월부터 추진한 농촌창업 경진대회는 농촌의 유·무형 자원과 아이디어를 결합한 우수창업 모델을 발굴하여, 농촌형 비즈니스 모델을 확산하고 농촌경제 활성화 등 농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개최하고 있다”며 “농촌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창업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 활력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	책임자	과 장	정문기 (044-201-1581)
		담당자	사무관	정세환 (044-201-1584)